

고의로 설계된 덫, 그리고 아주 늦게 알게 된 진실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이트들이 버젓이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건 실수로 만들어진 허술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본인이 알아서 조심했어야지.”

저도 그 말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교묘한 방식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일상이 지루하고, 뭔가 짧은 긴장감이 필요했던 순간이었죠. 그렇게 한 발 들어간 그 시스템은 너무나도 정교했습니다. 충전은 순식간에 끝나고, 몇 번의 승부에서 보상을 주며 사람을 안심시키더군요. 상담 응대도 빠르고 매끄러웠습니다. 처음부터 의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웃긴 건, **환전 시점이 되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서서히 조여오는 악의, 그리고 '합법처럼 보이는' 기만

처음엔 단순한 인증 절차인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인증서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다음엔 얼굴 나온 사진, 또 다른 각도의 사진, 심지어 손에 특정 문구를 써서 인증하라고도 하더군요. 계속해서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것만 충족하시면 바로 환전 처리됩니다.”

그 말을 믿고 계속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끝나자 이번엔 **계정 정지.**

그리고 돌아온 한 줄의 답변.

“운영 정책 위반으로 인해 보류되었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무슨 정책을 위반했냐고 물어도, 매뉴얼처럼 반복되는 문구만 돌아옵니다. 이미 저는 신분증, 얼굴 사진, 전화번호, 모든 것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그걸 노린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 몇 만 원, 몇 십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기획 사기**이고, **사람의 경계심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연구된 결과물**입니다.

공감도 없고, 구조도 없던 후기들 속에서

당황해서 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사이트 이름, 상담사 이름, 충전 조건, 환전 거부 키워드까지 붙여가며 무작정 뒤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기글은 감정적인 비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조가 없고,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미 당한 사람입니다. 그 시점에서 필요한 건 '그랬다더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때 찾은 게 [먹튀위크](#)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는 안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또 하나의 커뮤니티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페이지가 딱 열리는 순간부터 **톤이 달랐습니다.**

익명의 분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리된 데이터**가 있었고, 그 데이터가 시간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흐름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용했던 사이트도 그 안에 이미 등록돼 있었고, 같은 상담사 명, 동일한 조건으로 유도된 피해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건 뒤틀렸다는 것.**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그냥 조심해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보가 없다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무지하고, 두렵고,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설계된 사기 시스템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갈아 넣는 방식입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해준 건 수많은 후기글이 아니었습니다.

먹튀위크 같은,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정보처였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통해 사태의 본질을 파악했고, 피해를 더 키우는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또 다시 접근할 뻔했던 저를, 그 기록 하나가 붙잡아 준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부디 단 한 줄의 기록이라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놓인 상황은 '본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설계된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선 '운'이 아니라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늦게나마 알았습니다.

당신은 그보다 빨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